

Samsung Asset Management

2026 Profile Book

Contents

INTRODUCTION

| | |
|-----------------------|----|
| Financial Highlights | 04 |
| Message from the CEO | 06 |
| Vision | 08 |
| Investment Philosophy | 09 |
| 삼성자산운용의 ESG 투자 | 10 |

BUSINESS OVERVIEW

| | |
|-----------|----|
| ETF사업 | 14 |
| 자산운용 | 16 |
| 대체투자 | 21 |
| 기금사업 | 25 |
| 고객마케팅 | 28 |
|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32 |
| 현지법인 | 35 |

MANAGEMENT OVERVIEW

| | |
|---------------|----|
| 리스크·준법 및 책임경영 | 38 |
| 사회공헌 | 40 |

FINANCIAL SECTION

| | |
|-----------|----|
| 연결재무상태표 | 42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43 |
| 연혁 | 44 |





Samsung Asset Management

2026 PROFILE BOOK

삼성자산운용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선도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11년 국내 최초로 관리자산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2025년 말 기준 관리자산은 국내 최대 규모인 440.1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운용 규모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상품 개발, 안정적인 시스템, 체계적인 위험 관리 능력으로 업계를 선도합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고객의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Highlights

삼성자산운용은 총자산 1조 6,215억 원, 영업수익 5,498억 원, 세전이익 2,013억 원, 당기순이익 1,45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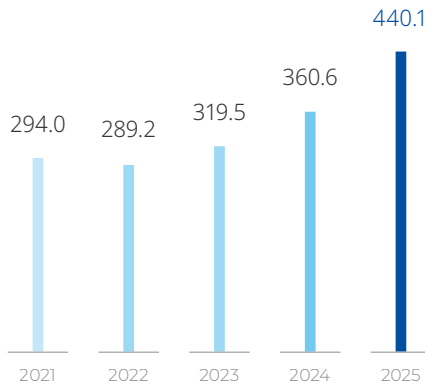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 FY2025 | FY2024 | FY2023 |
|--------------|-----------|-----------|-----------|
| 영업수익 | 549,772 | 472,098 | 352,819 |
| 영업비용 | 352,085 | 312,265 | 210,645 |
| 영업이익 | 197,687 | 159,833 | 142,174 |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201,293 | 159,811 | 141,695 |
| 법인세비용 | 56,193 | 37,966 | 35,053 |
| 당기순이익 | 145,100 | 121,845 | 106,642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7,776 | 87,541 | 162,061 |
| 기타자산 | 6,633 | 6,834 | 3,296 |
| 자산총계 | 1,621,501 | 1,906,771 | 1,775,278 |
| 예수부채 | 2,227 | 19,382 | 24,198 |
| 기타부채 | 6,801 | 10,139 | 6,580 |
| 부채총계 | 468,555 | 890,046 | 919,164 |
| 자본총계 | 1,152,946 | 1,016,725 | 856,1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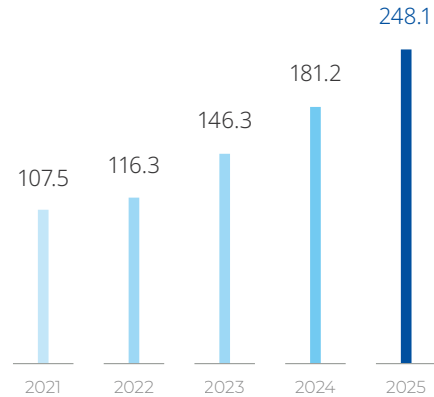
관리자산
(단위: 조 원)

440.1 조 원



수탁고
(단위: 조 원)

248.1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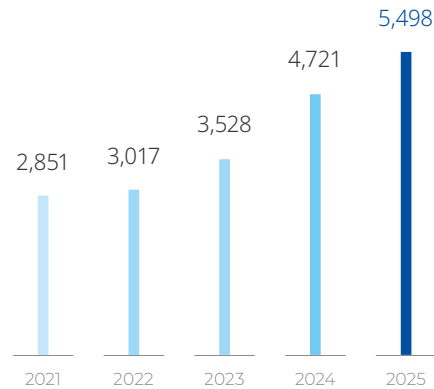
자산
(단위: 억 원)



16,215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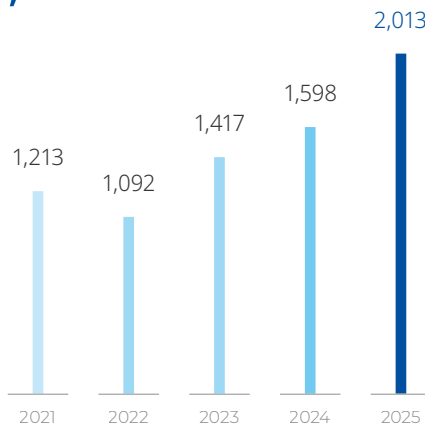
영업수익
(단위: 억 원)

5,498 억 원



세전이익
(단위: 억 원)

2,013 억 원



당기순이익
(단위: 억 원)



1,451 억 원



Message from the CEO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나아가 글로벌 선진 운용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우석입니다.

지난 2025년에도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정책, 제도 및 산업 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거시 환경 속에서 삼성자산운용은 2025년 말 연결 기준 관리자산 440조 원을 달성하며 국내 최대 관리자산 규모 기록을 경신했고, Kodex ETF의 관리자산 또한 114조 원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ETF 시장점유율 1위를 공고히 유지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5,498억 원, 세전이익 2,013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올해 2026년에도 삼성자산운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산운용사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에게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며, 다음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ETF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할 것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02년 업계 최초로 'Kodex 200'을 상장하면서 국내 ETF 시장을 개척한 이후, 지금까지 23년 이상 압도적인 순자산을 기록하며 국내 ETF 시장 1위 운용사의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Kodex ETF는 고객 니즈에 맞춘 다양한 자산군과 상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 순매수 1위를 달성했습니다. 덕분에 2025년 국내 ETF업계 최초로 순자산 100조 원을 돌파하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자산운용은 고객 중심의 운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해외 현지법인 등을 활용하여 ETF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하는 운용사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개척한 국내 ETF 시장은 이제 400조 원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투자자들까지 많이 선택하는 ETF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하여 글로벌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감지하면서 혁신적 상품을 제공하는 투자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체투자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단순한 자산 배분을 넘어, 자금이 실물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에너지 전환, 필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첨단 산업 공급망 확충, 주요 기업 인수금융 등 다양한 금융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글로벌 탑티어(Top-tier) 운용사들과 공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프라, PD(Private Debt),

PE(Private Equity) 등 대체투자 전 분야에서 독점적인 투자 기회를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성 확보와 한층 강화된 우량 투자 기회 발굴 역량을 바탕으로 대체자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운용사로 성장하겠습니다.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성장을 넘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전문적인 실사 역량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확보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체투자 명가로서, 고객의 자산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객 Value Up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 중심 운용을 실천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대한민국 1등 운용사로서 고객 신뢰, 수익률 1위, 혁신을 통한 고객 Value Up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보다 책임 있는 운용을 실천하겠습니다. 고객의 믿음직한 금융 파트너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책임을 다하며 운용 수익률까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투자 목표와 니즈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적의 맞춤형 상품과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시장은 끊임없이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경제 환경 속에서 삼성자산운용은 AI를 채택하는 회사가 아닌 AI로 경영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중단 없는 혁신을 시도하고, 도전적인 문화 구축을 통해 고객 중심 회사로서 지속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처럼 힘차게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의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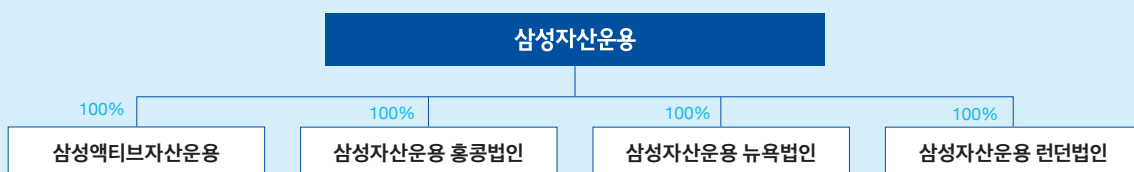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Vision

국내 최고·최대 종합운용사로서 국내시장을 이끌어온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선진운용사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검증된 투자원칙, 선진 운용 시스템과 체계적인 위험 관리 능력으로 고객의 자산 가치를 높ی겠습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과 글로벌 운용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신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이 더 큰 꿈과 희망이 되도록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하겠습니다.



조직도





Investment Philosophy

부문별 선진 투자 프로세스, 업계 최고의 In-house 리서치 체계, 수익뿐 아니라 리스크를 함께 중시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선진 투자 운용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자산의 안정적 초과수익을 실현하고 편안한 미래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 자산의 안정적 초과수익 실현 추구

차별화된 운용



운용자산별 특화
투자 프로세스



업계 최고의 리서치
인프라 체계



리스크 예방
중시 문화



팀 어프로치

자산군별 전문가 역량을
결집한 선진형 운용 전략 및
프로세스 구축



가치투자

국내 최고 리서치 조직을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 수요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



리스크 예방

수익과 리스크를 함께 중시하는
조직문화, 사전-중간-사후의
전방위 리스크 관리 체제

Your Next Step ESG Investing

올바른 투자를 통해 미래사회의 성장을 선도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의 ESG 투자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는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ESG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산 운용사로서 상품 개발, 리서치, 운용, 리스크 관리와 같은 전사적인 프로세스에 ESG 요인을 반영하여 위험을 제어하고 기회를 포착해 고객 자산의 안정적인 초과 수익 실현을 추구합니다.

* ESG 투자란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NVIRONMENTAL

-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 에너지, 에코 시스템, 광물 자원, 수자원, 생물다양성 등



SOCIAL

- 사회적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 인권, 고객 데이터 보호, 성별 및 다양성 존중, 노동 기준 등



GOVERNANCE

-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 모델, 상관습
- 부정부패 방지, 로비금지, 위원회 구성 및 구조, 보상체계 등



ESG Philosophy

삼성자산운용은 ESG 분석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투자 운용 프로세스에 ESG를 효율적으로 통합해 더욱 강화된 운용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사 투자 철학에 ESG 요인을 반영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위험 조정 수익률 개선 추구

고객 자산의
안정적 초과수익
실현 추구

차별화된 운용

장기적 관점에서 ESG의 위험과 기회 요인 식별
비재무적 요인인 ESG 고려하여 신의성실 의무 충실



팀 어프로치

ESG 통합으로 선진 투자 운용
프로세스 구축



가치투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투자로 장기적인 가치 창출



리스크 관리




전방위적인
ESG 리스크 관리



ESG Investment Process

삼성자산운용의 ESG투자는 총체적 접근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 철학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만한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 ESG 요인을 고려하여 우량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와 공시를 실행하는 것까지 모두 ESG 투자에 포함됩니다.

ESG 투자 기본 방법론

| | | |
|---|--|---|
| <p>Holistic Approach</p>  <p>총체적 접근법을 원칙으로 하여 상품개발, 리서치, 운용, 리스크 관리 등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 ESG 요소를 적용한다.</p> | <p>Customization</p>  <p>One model does not fit all. 개별 펀드의 투자목적 및 자산 특성에 최적화된 ESG 투자전략을 발굴하고 발전시킨다.</p> | <p>Objectivity & Independence</p>  <p>독립적인 ESG 전담조직을 매개로 통합적인 ESG 데이터 관리, 리서치 및 전략 개발 실시하여 객관성을 증대한다.</p> |
|---|--|---|

ESG 의사결정 체계

| | 논의사항 | 의사결정협의체 |
|--|--|---|
|  <p>ESG 전략 & 정책 수립</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개념 및 철학 수립 · 정책 및 주요 추진 활동 · 전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위원회 · ESG 실무협의회 |
|  <p>상품개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ESG 시장 동향 · ESG 테마 발굴 및 상품화 · ESG 상품구조 및 운용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개발 위원회 · 상품개발 실무협의회 · ESG 실무협의회 |
|  <p>포트폴리오 운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별 특성 고려한 최적 ESG 전략 발굴 · 포트폴리오 구축시 ESG 요인 고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실무협의회 · 운용본부와 ESG 전담 조직간 ESG 리서치 공유 및 협업 |
|  <p>리스크 관리 & 공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리스크 모니터링 · ESG 요인 연계 성과분석 · 국내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공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실무협의회 · 리스크관리팀, 운용 본부, ESG 전담 조직간 협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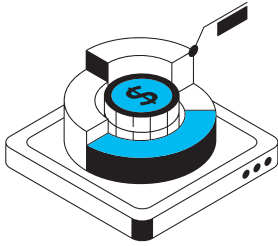
BUSINESS OVERVIEW

삼성자산운용은 장기간 시장에서 검증된 투자원칙을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투자 상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며, 높은 도덕성과 철저한 원칙에 입각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이 더 큰 꿈과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4 ETF사업
- 16 자산운용
- 21 대체투자
- 25 기금사업
- 28 고객마케팅
- 32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35 현지법인

Exchange-Traded Funds (ETF)

ETF사업



||

삼성자산운용은 ETF 상품 개발·운용과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ETF 전문 운용사입니다. 국내에서 축적한 운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국, 홍콩 등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글로벌 ETF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ETF Solution Provi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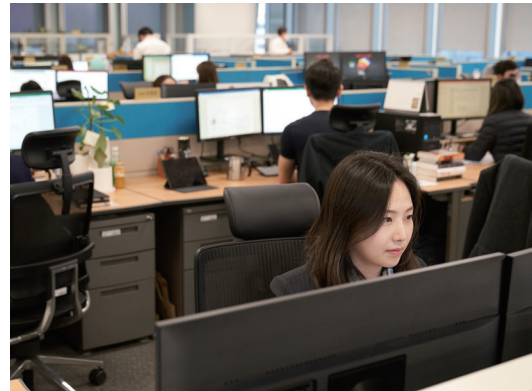
삼성자산운용 Kodex는 2002년 국내 최초로 ETF를 상장한 이후,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 ETF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2002년 Kodex 200 ETF 상장을 시작으로 2006년 국내 최초 섹터형 ETF, 2007년 국내 최초 해외투자 ETF, 2008년 국내 최초 테마형 ETF, 2009년 국내 최초 채권형 ETF 등을 선보이며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를 상장하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 ETF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팩터 기반 스마트베타 ETF를 출시하고, 2020년에는 주식형 액티브 ETF와 국내외 테마형 ETF를 확대하며 상품 라인업을 다각화했습니다. 그 결과 업계 최초로 ETF 순자산 30조 원(2021년), 40조 원(2023년), 60조 원(2024년)을 차례로 돌파했습니다.

2025년에는 성장세가 더욱 확대되며 업계 최초로 ETF 순자산 110조 원을 넘어섰고, 200개 이상의 ETF를 운영하는 최초의 운용사가 되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자산운용 Kodex의 ETF 순자산은 113.5조 원으로, 국내 ETF 시장에서 38.2%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 226개의 상품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상품 개발을 이어가는 한편, 해외 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글로벌 투자 솔루션 제공을 위한 해외 자산 관련 상품과 전략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품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고도화와 컨설팅 역량 강화를 통해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며 국내 ETF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ETF 시장의 선도자로서 ETF 상품과 투자 솔루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ETF 시장의 중심인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투자 의사결정 전반의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2022년 3월 미국 ETF 전문 운용사 Amplify社의 지분을 인수하며 미국 ETF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후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ETF 운용 플랫폼 구축과 현지 상품 라인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리딩 ETF 운용사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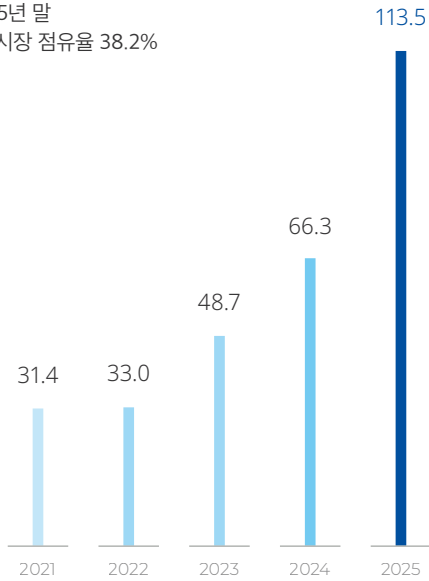




ETF 순자산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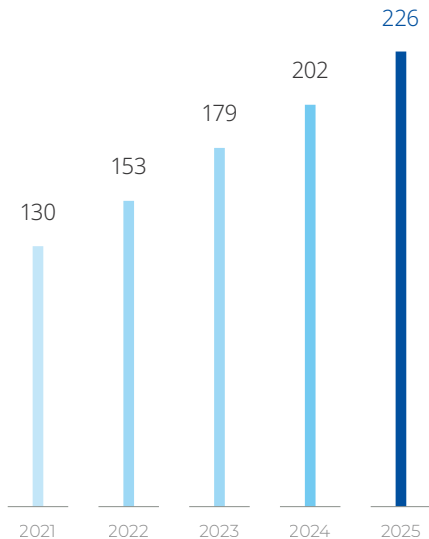
113.5조 원

2025년 말
ETF시장 점유율 38.2%



Kodex 상품수
(단위: 개)

22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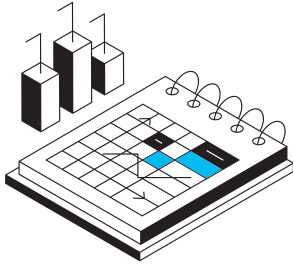
ETF 유형별 순자산 현황
(단위: 조 원)



| | | |
|-------------|------|---------|
| ● 국내주식 | 34.7 | (30.6%) |
| ● 해외주식 | 20.4 | (18.0%) |
| ● 국내채권 | 35.0 | (30.8%) |
| ● 해외채권 | 3.0 | (2.6%) |
| ● 국내파생(L/I) | 9.1 | (8.1%) |
| ● 해외파생(L/I) | 0.8 | (0.7%) |
| ● 국내커버드콜 | 2.5 | (2.2%) |
| ● 해외커버드콜 | 3.8 | (3.4%) |
| ● 기타 | 4.2 | (3.7%) |

Asset Management

자산운용



II

삼성자산운용은 주식, 채권, 멀티에셋, LDI 등 폭넓은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운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리서치와 운용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의 자산배분과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며,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LDI (Liability-Driven Investment)

삼성자산운용은 보험부채 이해를 기반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험 솔루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약 141.7조 원 규모의 보험사 일반계정 및 퇴직계정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LDI는 2015년부터 보험사 자금 운용 경험을 축적해 오며, 국내 최대 규모의 ALM 투자 조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고수의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객의 부채 속성을 감안한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국공채와 국내외 우량 회사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수익 제고를 위해 국내외 주식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의 경우 뉴욕·런던 현지 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채권 투자와 신규 투자 대상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스왑, 통화선도 등 파생상품을 활용해 해외 자산에 대한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식 투자에서는 지수 추종 외 글로벌 EMP 및 절대수익형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재보험 사업 확대와 연금 시장 성장에 대응해, 자산 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객별 특성에 부합하는 ALM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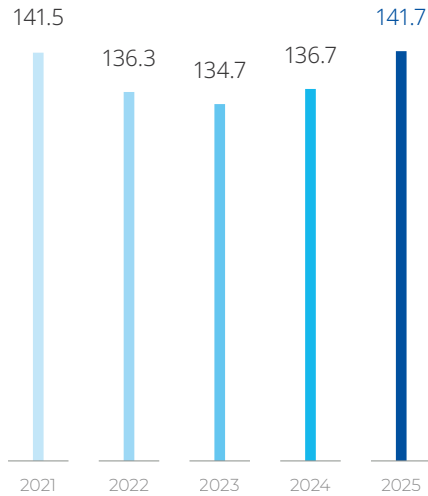




LDI 수탁고

(단위 : 조 원)

141.7조 원



LDI 자산별 비중

(단위 : 조 원, %, 2025년 12월 말 기준)

- 국내채권
- 해외채권
- 주식



| | | |
|--------|-------|---------|
| ● 국내채권 | 116.9 | (82.5%) |
| ● 해외채권 | 24.6 | (17.4%) |
| ● 주식 | 0.2 | (0.1%) |



채권운용 (Fixed-Income Investment)

삼성자산운용은 국내외 금리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부터 적극적인 트레이딩 전략까지 다양한 채권 투자 전략을 수행하며, 폭넓은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오랜 기간 축적된 채권 운용 경험과 검증된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장기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국내 주요 연기금과 보험사의 대규모 자금을 일임받아 MMF부터 장기채권까지 다양한 만기와 전략을 아우르는 공·사모 채권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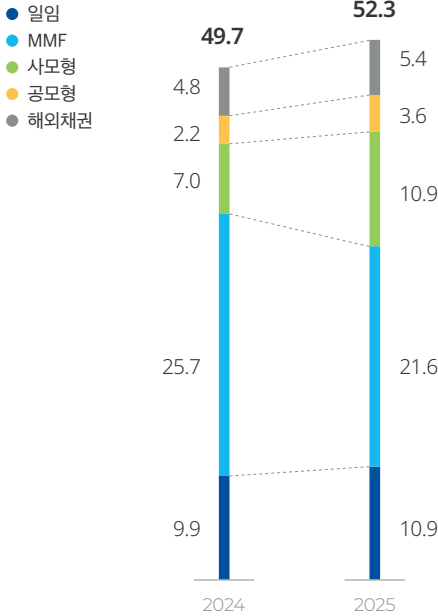
머니마켓펀드(MMF) 부문에서는 2025년에도 시장점유율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운용에서는 안정적인 성과와 장기간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중 LH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대형 기관의 자금을 유치했으며, 2020년 장기종합채권 ETF 출시 이후 채권형 ETF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머니마켓 액티브 ETF가 출시 1년 2개월 만에 순자산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해외 채권 운용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국내 운용사 최초로 한국은행(BOK)과 한국투자공사(KIC)의 글로벌 채권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에도 국내 주요 기금과 다양한 기관 자금을 추가로 유치했습니다. 같은 해에는 달러(USD) 초단기 채권 펀드를 출시하며 달러 단기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2026년에는 국내외 금리 환경 변화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높아진 금리 수준을 바탕으로 인컴 투자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리서치 역량과 운용 성과 분석, 운용 시스템(PMS) 개선을 통해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채권 전략과 상품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권운용 수탁고 현황

(단위: 조 원, 연말 기준)



멀티에셋 (Multi-Asset Inves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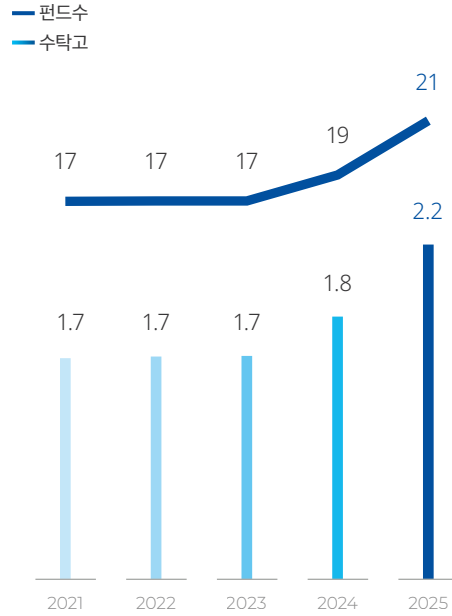
삼성자산운용의 멀티에셋운용은 글로벌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주식과 채권은 물론 리츠(REITs), 인프라, 원자재, 헤지펀드 등 대체자산까지 투자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ETF와 우수 펀드 선정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투자수단을 구성하고, 자산배분 전략에 퀀트 및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접목하여 차별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운용 역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위험 성향과 재무 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자산배분 솔루션을 제공하며, TDF(Target Date Fund)를 비롯한 다양한 자산배분 펀드와 퇴직연금 법인 고객을 위한 ALM(Asset & Liability Management) 기반 솔루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OCIO 시장에서 주요 대학기금의 위탁운용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개인 및 기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삼성자산운용은 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성과 창출을 목표로 투자 솔루션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TDF, OCIO, AI 기반 퀀트 운용, 글로벌 재간접 투자 등 핵심 성장 영역에 대한 투자와 리서치를 확대함으로써 업계를 선도하는 자산운용사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TDF(Target Date Fund) 운용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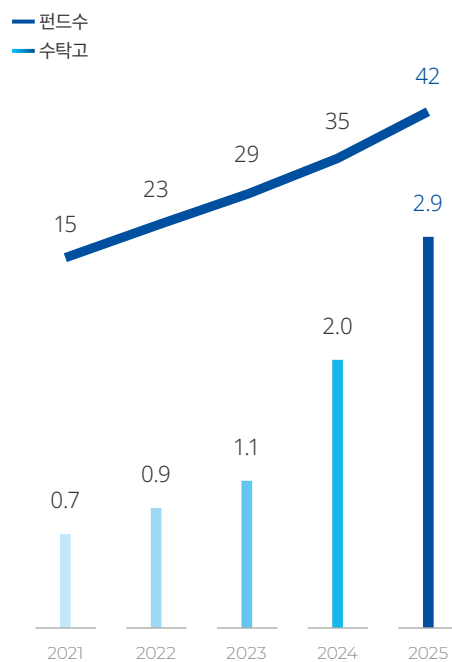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삼성 글로벌액티브 적격TDF와 삼성 글로벌EMP 적격TDF 합산

OCIO/퇴직연금 운용규모

(단위: 조 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포함





주식운용 (Equity Investment)

삼성자산운용의 주식운용은 국내외 주식 시장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리서치와 운용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 투자 수요 확대에 대응해, 해외 주식 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일임 운용자산 규모에서는 업계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테마형 공모펀드를 출시하는 한편, 기관 일임·사모 시장에서는 주요국 인헨스드 인덱스 전략과 EMP(ETF Managed Portfolio)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운용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약 16조 원 이상의 주식 운용자산(AUM)을 기반으로, 국내 대표 주식운용 하우스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용 전략에 있어서는 정량적(퀀트) 운용 방식과 정성적(Bottom-up/Top-down) 운용 방식 모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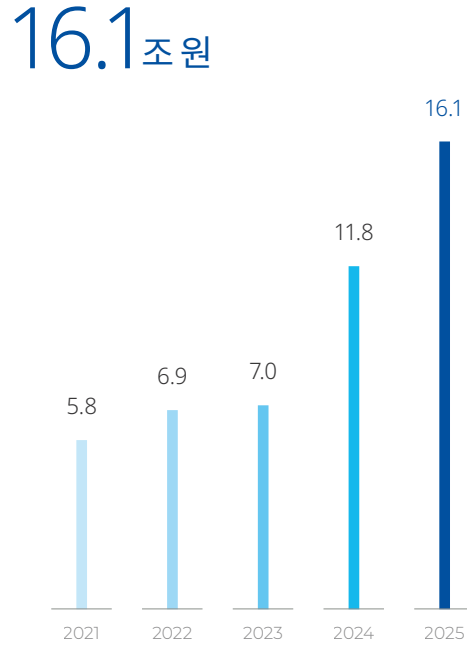
먼저, 인덱스 전략 및 퀀트 운용 전략은 2025년 말 기준 약 12조 원 규모의 운용자산에 대해 정량적 모델에 근거한 체계적인 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기반과 장기적인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된 투자 전략을 구현하고, 계량적 분석을 활용해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기대되는 리스크 팩터(Factor)를 선별하고, 팩터 노출(Factor Exposure)에 따른 알파 창출을 목표로 AI·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모델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수시 전략 점검과 운용 성과 분석, 리스크 관리와 피드백 체계를 운영하며 운용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적 운용 방식의 경우, 2025년 말 기준 약 4조 원 규모의 수탁고를 운용하고 있으며, 직접 운용과 외부 운용사 위탁 운용 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해외 주식 투자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용에서는 개별 주식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와 주식형 ETF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포트폴리오는 공모펀드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식형 ETF 포트폴리오(EMP)는 일임 및 사모펀드 형태로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등 주요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유니버스 구축과 ETF 분석 과정에 최신 분석 기법을 접목하고 있으며, 전자 투자전략회의를 통해 수립된 하우스 뷰와 멀티 매니저 체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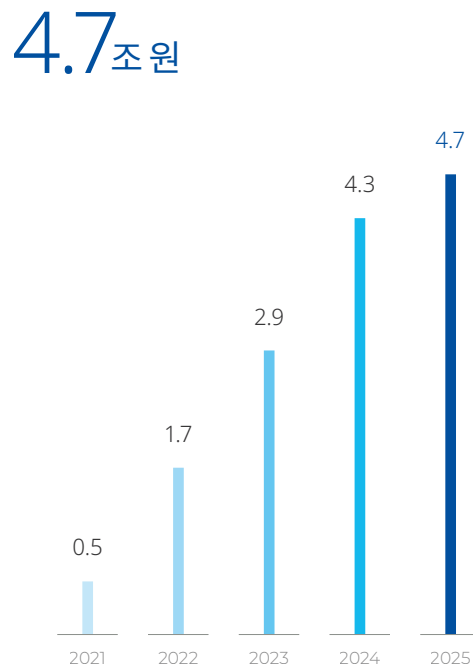
주식운용 일임 규모

(단위: 조 원)



주식운용 해외 일임 규모

(단위: 조 원)



투자리서치센터 (Investment Research Center)

House-View를 통해 투자전략 솔루션과 마케팅 지원

투자리서치센터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주요 투자자산 분석을 바탕으로 삼성자산운용의 House-View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주요 투자자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장 환경을 진단하고, 전사 운용 조직의 투자 판단과 자산배분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립된 House-View는 멀티에셋, 퇴직연금, OCIO 등 주요 사업 부문의 운용 전략과 투자 솔루션에 활용되며, 전사 차원의 일관된 투자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lternative Investment

대체투자



삼성자산운용은 인프라, 사모대출, Private Equity 등 대체투자 전 영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축적된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중장기 성과 창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프라투자 (Infrastructure Investment)

삼성자산운용의 인프라투자는 섹터에 편중되지 않은 투자 전략을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수탁고는 2016년 말 0.4조 원에서 2025년 말 9.2조 원으로 확대되며 연평균 43%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우량 인프라 자산을 발굴하고, 국내 기관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인프라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발전, 신재생에너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인프라(광통신망, 통신타워, 데이터센터 등)와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분야로 투자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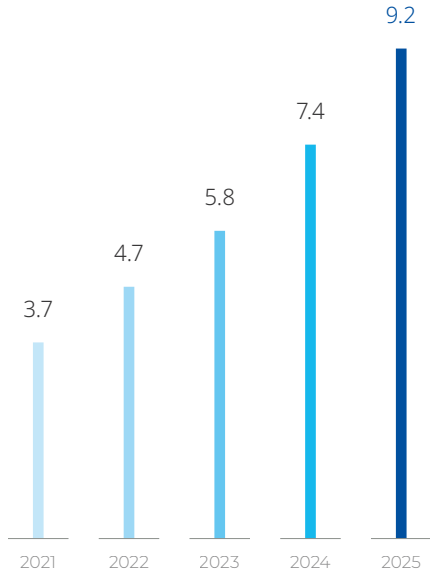
해외 네트워크와 축적된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선진국 중심의 우량 인프라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블라인드 펀드를 활용한 신규 투자와 국내 신재생·BESS 등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메자닌 등 고수익 구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수탁고

(단위 :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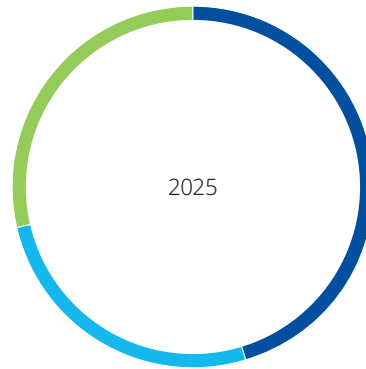
9.2조 원



형식 구성

(2025년 12월 말 기준)

- 블라인드
- 재간접
-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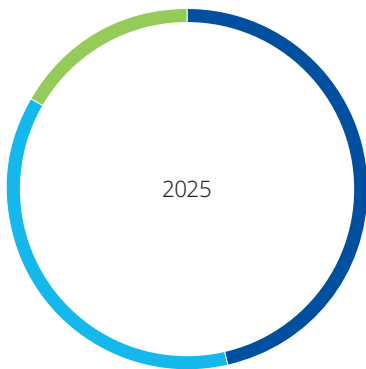


| | |
|--------|-------|
| ● 블라인드 | 45.3% |
| ● 재간접 | 26.3% |
| ● 프로젝트 | 28.4% |

상품 구성

(2025년 12월 말 기준)

- 대출
- 수익증권
- 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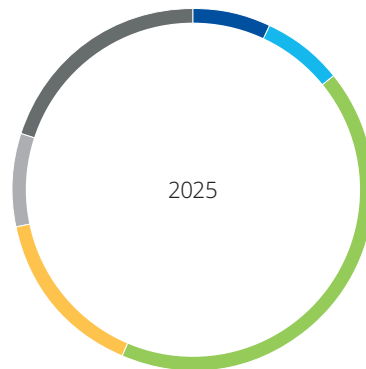


| | |
|--------|-------|
| ● 대출 | 46.4% |
| ● 수익증권 | 37.0% |
| ● 지분 | 16.6% |

섹터 구성

(2025년 12월 말 기준)

- Digital
- Energy
- Multi-Sector
- PPP
- Energy Transition
- Utilities



| | | | |
|----------------|-------|---------------------|-------|
| ● Digital | 7.1% | ● PPP | 15.4% |
| ● Energy | 7.2% | ● Energy Transition | 8.1% |
| ● Multi-Sector | 42.3% | ● Utilities | 20.0% |

PD투자 (PD Investment)

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사모대출(Private Debt), 국내의 인수 금융, 선박·항공기 금융 등 다양한 블라인드 펀드를 운용하며 투자자에게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약 4.8조 원 규모의 관련 펀드 수탁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환경 변화 속에서도 변동금리 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모대출은 수익 측면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주의 현금흐름과 재무 안정성을 면밀히 평가하는 GP의 운용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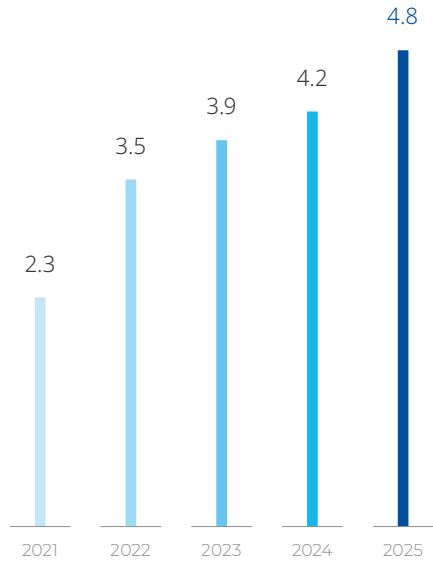
삼성자산운용은 북미 및 유럽 사모대출 시장의 주요 GP들과 선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으며,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략, 수익성, 안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Direct Lending을 중심으로 Credit Secondaries, 에버그린(Evergreen) PD 펀드 등으로 투자 영역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PD 수탁고

(단위 : 조 원)

4.8조 원



상품 구성

(2025년 12월 말 기준)

- 대출
- 재간접
- 혼합



| | |
|-------|-------|
| ● 대출 | 30.6% |
| ● 재간접 | 59.2% |
| ● 혼합 | 10.2% |



섹터 구성

(2025년 12월 말 기준)

- PD
- 인수금융
- 선박
- 헤지펀드
- 항공기
- 유동성 대체
- 기타



| | | | |
|--------|-------|----------|------|
| ● PD | 41.7% | ● 항공기 | 2.7% |
| ● 인수금융 | 23.2% | ● 유동성 대체 | 0.8% |
| ● 선박 | 14.0% | ● 기타 | 7.7% |
| ● 헤지펀드 | 9.9% | | |

PE투자 (PE Inves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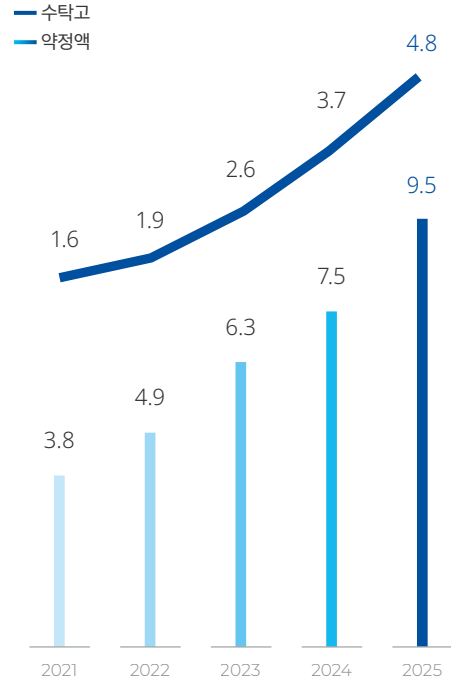
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우량 Private Equity 펀드에 투자해 국내 기관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글로벌 대체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PE 투자 약정액은 약 9조 5,352억 원, 수탁고는 약 4조 8,375억 원입니다.

1997년부터 글로벌 PE 투자를 이어오며 26년 이상의 투자 경험과 운용사 네트워크를 축적해 왔으며, 운용 성과와 조직 안정성이 검증된 글로벌 PE 운용사의 PEF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Fund of Funds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가 축적된 글로벌 GP와의 공동투자를 확대해 2021년 공동투자 전문 펀드를 설립했으며, 2023년부터는 글로벌 GP 펀드 지분과 공동투자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할인 매입하는 세컨더리 프로젝트 투자를 본격화해 J-curve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컨더리 투자 확대와 함께 대형 기관 SMA 자금 운용 등 투자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PE 약정액 및 수탁고

(단위: 조 원)



PE사업별 투자 현황

(단위: 조 원, 2025년 말 기준, 약정 기준)

- FoFs
- 일임
- 재간접
- 공동투자



| | | |
|--------|-----|---------|
| ● FoFs | 3.9 | (40.7%) |
| ● 일임 | 3.1 | (32.6%) |
| ● 재간접 | 2.0 | (21.0%) |
| ● 공동투자 | 0.5 | (5.7%) |

Fund Business

기금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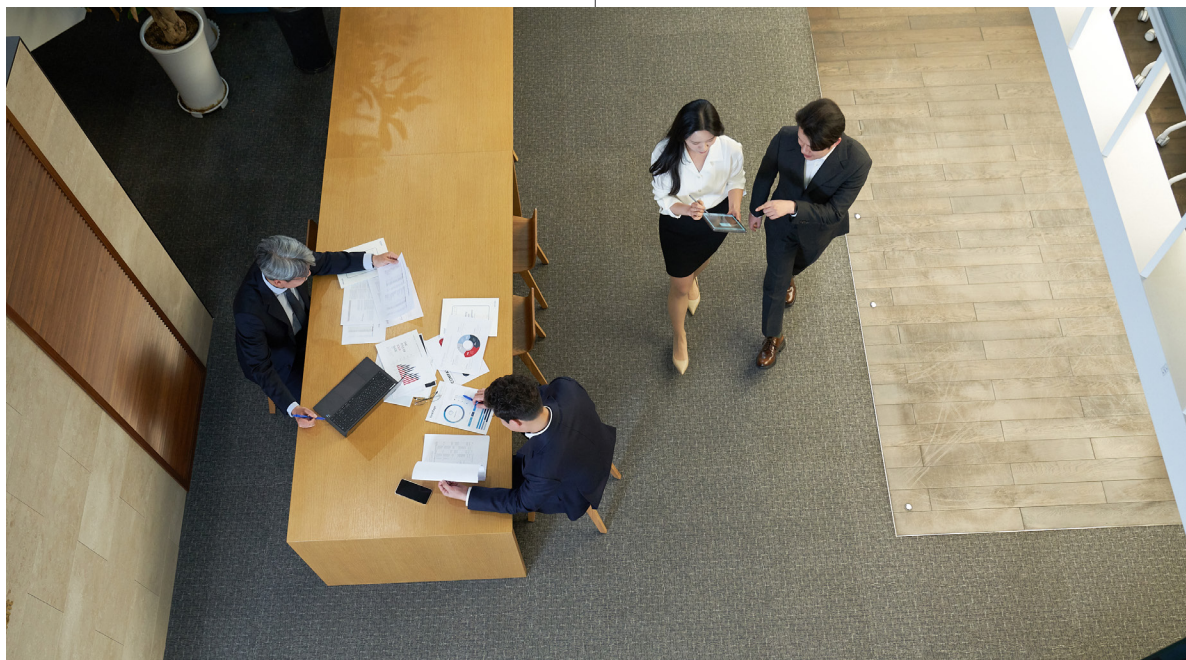
삼성자산운용은 공적 기금의 제도적 목적과 자금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축적된 OCIO 운용 경험과 체계적인 운용 프로세스를 통해 공공자금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하고 있습니다.

투자풀 (Investment Pool)

삼성자산운용은 2001년 12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입된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주간운용사로서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 자금을 통합 운용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6회 연속 주간운용사로 선정되었으며, 제7회 주간운용사 선정 평가에서도 재선정되어 2029년까지 주간운용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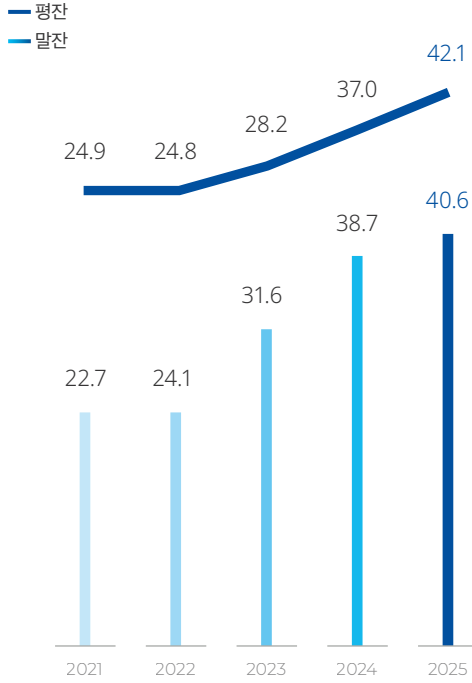
또한 24년간 연기금투자풀 제도를 운영해 온 국내 최초 및 최대 운용규모의 공공 OCIO 전담조직으로서, 연기금 자산운용체계 고도화와 운용전략 다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연기금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150여 개 공적 기금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8개 기금은 2022년 도입된 완전위탁제도를 통해 기금 여유자금 전체를 위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기금투자풀 수탁고는 2025년 말 기준 약 40.6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러한 운용 성과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기금투자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재정건정성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폴 수탁고

(단위: 조 좌)



투자폴 펀드 유형별 운용 규모

(단위: 조 좌, 2025년 12월 말 기준)



| | | |
|---------|------|---------|
| ● MMF | 10.1 | (24.9%) |
| ● 국내채권형 | 13.9 | (34.2%) |
| ● 혼합형 | 8.3 | (20.4%) |
| ● 주식형 | 0.6 | (1.5%) |
| ● 해외주식형 | 1.7 | (4.2%) |
| ● 해외채권형 | 0.5 | (1.2%) |
| ● 대체투자 | 0.3 | (0.7%) |
| ● 완전위탁형 | 5.3 | (13.1%) |



산재보험기금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und)

삼성자산운용은 2015년 전담 자산운용체계 도입 이후 고객 중심의 OCIO(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체계를 확립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기금의 투자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기금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산재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전액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ALM(Asset-Liability Management)에 기반한 중장기 자산배분 전략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산재보험기금은 연간 수익률 16.65%를 기록하며 기금 설립 이래 최고 수준의 운용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 누적 수익률은 약 83.89%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2025년 국내 Full OCIO 주간운용사 체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며, OCIO 운용 역량과 성과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새로운 10년을 향해 2026년부터 운용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투자를 이어가며,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재보험기금 자산군별 운용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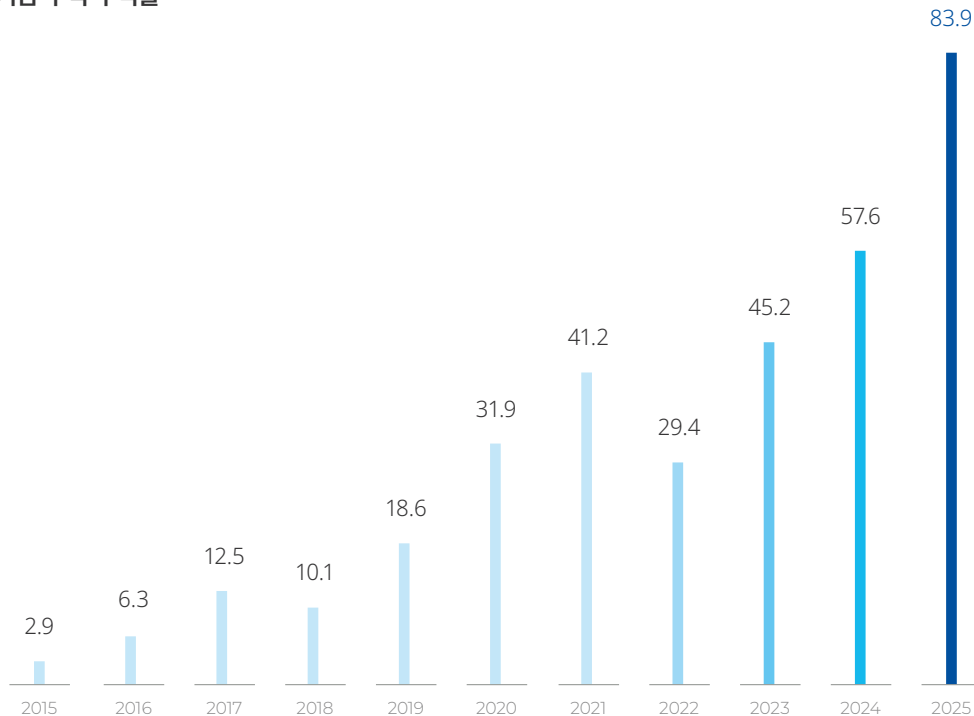
(단위: 조 원, 2025년 12월 말 기준)



| | | |
|--------|------|---------|
| ● 국내채권 | 11.1 | (40.0%) |
| ● 국내주식 | 4.3 | (15.6%) |
| ● 해외채권 | 0.9 | (3.3%) |
| ● 해외주식 | 6.5 | (23.5%) |
| ● 대체투자 | 3.4 | (12.3%) |
| ● 단기자금 | 1.5 | (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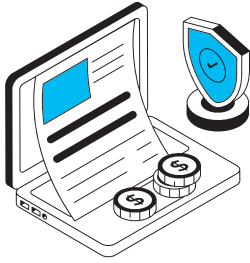
산재보험기금 누적 수익률

(단위: %)



Customer Marketing

고객마케팅



삼성자산운용은 개인과 기관의 다양한 투자 목적과 자금 특성에 맞는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증권 채널과 기관·연금 OCIO,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일관된 투자 경험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널마케팅 (Channel Marketing)

삼성자산운용은 은행·증권 채널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 수요에 대응하는 상품과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고객에게는 리테일 상품 라인업을 통해 자산 증식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에는 자금 운용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자산, 자산배분 상품 등 글로벌 다양한 자산을 아우르는 상품 라인업을 통해 투자자가 원하는 자산과 지역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휴머노이드, ESG, OCIO 등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형 상품을 통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증권 채널에는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보유한 Kodex ETF와 맞춤형 사모펀드를 제공하며, 자금 성격과 투자 기간을 고려한 종합적인 투자 솔루션과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비대면 환경 확대에 대응해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편 등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 채널에 특화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삼성자산운용은 시장 변화와 투자자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ETF와 공모펀드, 트렌드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테마형·디지털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마케팅 AUM

(단위: 조 원, 2025년 12월 말 기준)



| | |
|-------|-----|
| ● 주식형 | 1.2 |
| ● 채권형 | 1.6 |
| ● 혼합형 | 0.4 |
| ● 재간접 | 1.6 |
| ● 파생형 | 0.8 |
| ● MMF | 5.3 |
| ● 기타 | 0.1 |

기관OCIO (Institutional OCIO)

삼성자산운용은 연기금, 공공기관, 공제회, 보험사, 중앙회 등 전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최적의 자금운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과 투자 기간을 고려한 상품 제안부터 성과 분석, 리스크 관리까지 운용 프로세스 전반을 아우르는 OCIO 운용 체계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축적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대학기금 OCIO 사업, 민간투자플 주간운용사 업무를 수행하며, IPS 수립, 자산배분, 펀드 매니저 선정·관리, 자금 집행 및 성과 평가 등 자금 운용 전반에서 CIO 역할을 대리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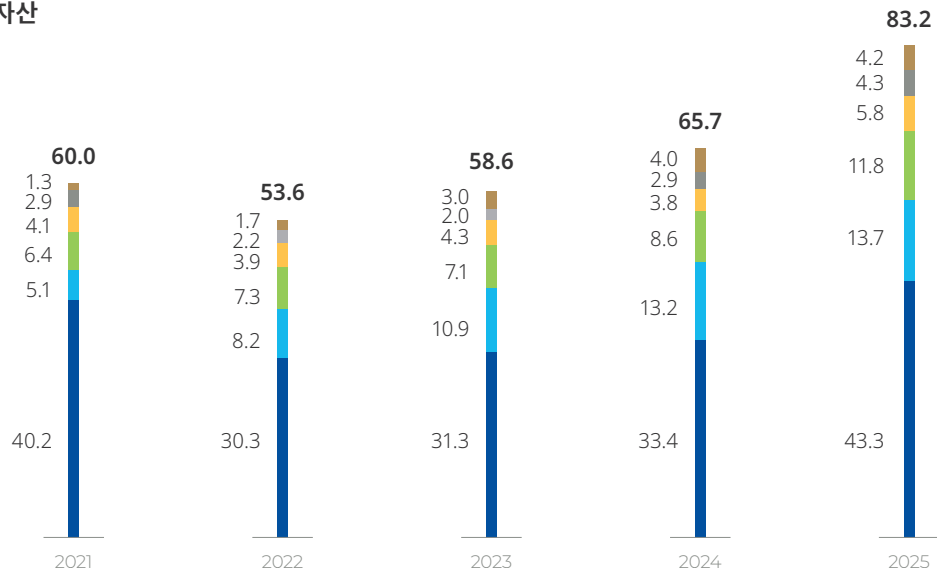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최고 수준의 운용 및 리서치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와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은 물론 ETF, EMP, 절대수익 전략 등 다양한 자산 유형을 아우르는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투자플과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기금과 공적자금 OCIO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2019년 최초 민간 OCIO인 서울대발전기금을 시작으로, 주요 대학기금과 예금보험공사, LH공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OCIO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삼성자산운용은 업계 최고 수준의 운용 역량과 House-View를 기반으로 시장 환경과 자금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관OCIO 유형별 관리자산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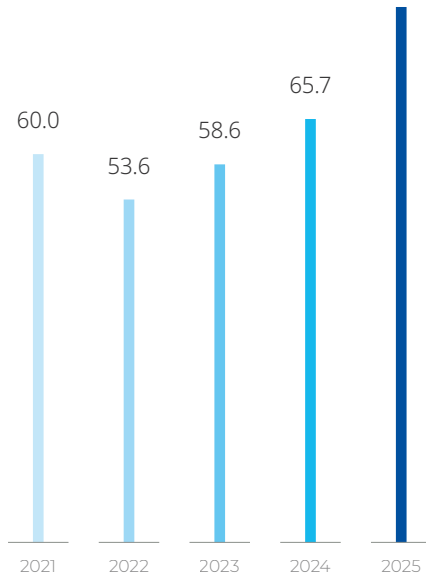
- 투자일임
- MMF
- 채권형
- 주식형
- 재간접형
- 기타



기관OCIO 관리자산(AUM)

(단위 : 조 원)

83.2조 원



연금OCIO (Pension OCIO)

삼성자산운용은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개인연금은 물론 일반·공공기업의 퇴직연금과 고유 자금 운용을 아우르는 연금 자산 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심화와 사적 연금에 대한 관심 확대 속에서 퇴직연금 시장은 2025년말 기준 500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의 운용 구조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ETF와 펀드를 포함한 폭넓은 상품 라인업과 연기금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연금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글로벌 액티브 TDF를 출시한 이후 2020년 글로벌 EMP TDF와 2022년 Kodex TDF 2030~2060 ETF 시리즈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2025년 말 기준 TDF 총 순자산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자산배분에 특화된 글로벌 EMP 펀드는 2023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이후 우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부문에서도 ALM 전략과 목표 기반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의 운용을 확대해 왔으며, 관련 운용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4.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울러 축적된 OCIO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연금 자산은 물론 기업 고유자금까지 포함하는 통합 OCIO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22년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약 7천억 원의 자금을 운용 중이며, 2026년에는 운용 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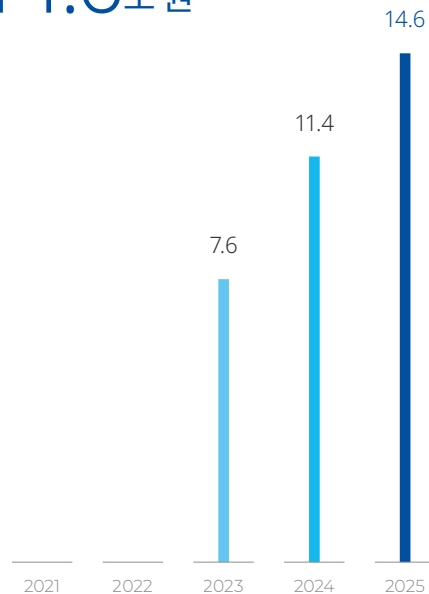
2026년에도 삼성자산운용은 TDF 운용 전략 고도화와 연금 수령 특화 상품 개발, Kodex ETF 라인업 강화 등 퇴직연금 자산 운용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뒷받침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금OCIO 수탁고

(단위 : 조 원)

14.6조 원



투자자 유형별 수탁고

(단위: 조 원, 2025년 12월 말 기준)

- 퇴직연금(DB)
- 퇴직연금(DC/IRP/개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민간기업



| | |
|-------------------|-----|
| ● 퇴직연금(DB) | 4.6 |
| ● 퇴직연금(DC/IRP/개인) | 7.4 |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0.7 |
| ● 민간기업 |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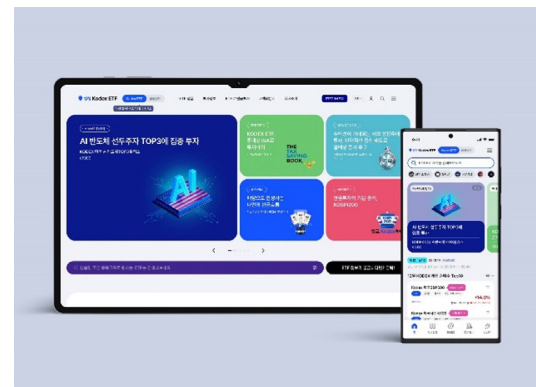
디지털마케팅 (Digital Marketing)

삼성자산운용은 디지털 및 AI 기술의 발전과 투자자의 정보 습득 방식 변화에 맞춰 전자 디지털마케팅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디지털 통합 조직 신설 이후, 유튜브와 홈페이지, FunETF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ETF와 펀드 상품에 대한 투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영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흐름에 맞춰, 자사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상품 및 트렌드 관련 영상 콘텐츠를 공급하는 한편, 슈카월드나 숏박스와 같은 외부 채널과의 콜라보를 통해 투자자들이 당사 브랜드와 상품을 보다 친숙하고 우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업계 1위 운용사로서 국내 모든 ETF와 펀드를 검색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FunETF'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FunETF는 운용업계 유일의 상품 플랫폼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4년 8월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 스마트앱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22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ETF 투자자들의 필수 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업계 최초로 ETF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5월 CS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인기 있는 상품, ETF 분배금 등 다양한 궁금증을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업무시간 외 야간 문의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고객 편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다양한 플랫폼에 AI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동시에 쉽고 친숙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ETF와 펀드 시장 저변 확대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ETF 투자 플랫폼 'FunETF' 앱/웹



Kodex/삼성자산운용 앱/웹



Samsung Active Asset Management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하지원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궁극적인 사명은 고객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액티브 운용전략을 통하여 고객분들께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운용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이렇게 고객 여러분의 자산을 운용하겠습니다.

첫째, 리서치센터와 운용본부가 늘 치열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는 팀 어프로치 시스템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투자대상의 본질가치에 주목하여 중장기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투자 확신이 높아지는 종목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기대수익과 리스크를 철저히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초과수익의 달성을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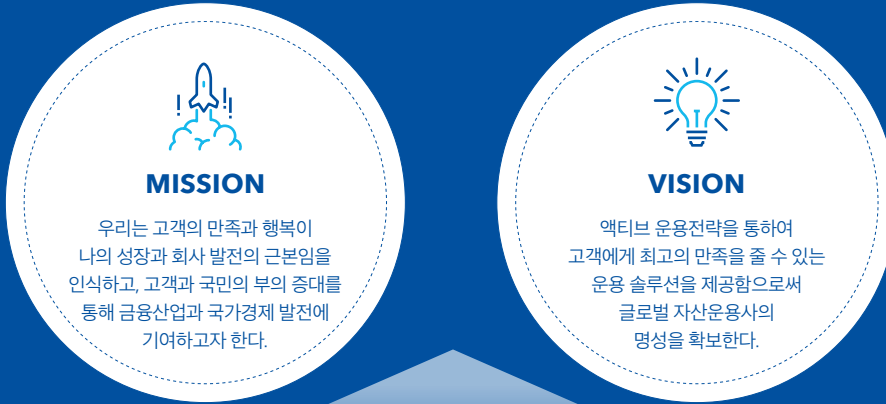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늘 인식하겠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개념을 투자 프로세스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고객분들의 자산관리 걱정을 덜어드릴 탄탄한 펀드상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객에게 사랑받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산운용사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투자한다는 투자 철학하에 2023년 8월 새롭게 시작한 액티브 ETF 사업은 2026년 1월 말 기준 19개의 ETF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ETF 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고객분들의 자산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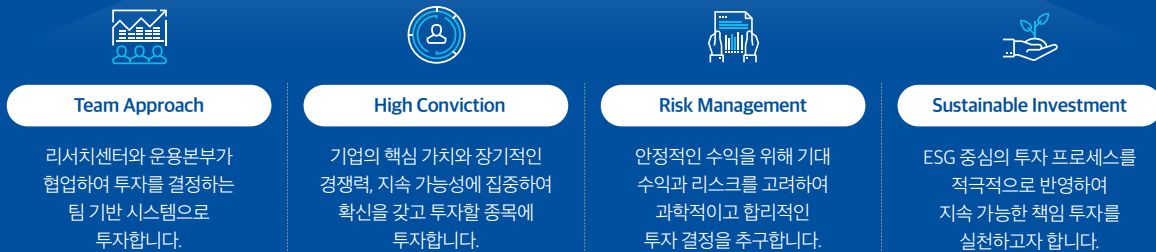




운용철학



액티브 투자를 통한 고객 자산의
안정적 초과수익 실현 추구



GARP

GARP (Growth at Reasonable Price)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에 투자



KoAct ETF

KoAct

Aging society · Climate crisis · Technology

인구 고령화 · 기후 위기 · 기술 발전

세상의 변화에 투자합니다.

KoAct Active ETF

세상의 변화에 투자한다는 투자철학 하에 KoAct는 A.C.T라는 세가지 변화에 주목합니다.



A: Aging Society (인구) → KoAct 바이오헬스케어, KoAct 미국바이오헬스케어, KoAct 차이나바이오헬스케어, KoAct 미국치매&노질환치료제, KoAct 글로벌K컬처밸류체인

C: Climate Change (기후변화) → KoAct 글로벌친환경전력인프라, KoAct 미국천연가스인프라, KoAct 수소전력ESS인프라

T: Tech Innovation (기술의 변화) → KoAct 글로벌AI&로봇, KoAct 글로벌양자컴퓨팅, KoAct 반도체&2차전자핵심소재, KoAct 브로드컴밸류체인, KoAct AI인프라, KoAct 팔란티어밸류체인

※ 전략형 : KoAct 배당성장, KoAct K수출핵심기업TOP30, KoAct 코리아밸류업, KoAct 나스닥채권혼합50, KoAct 미국나스닥성장기업

가장 의미 있는 세가지 변화 트렌드에, 삼성액티브자산의 투자 철학과 검증된 전략을 담아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운용합니다.

Overseas Subsidiaries

현지법인



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주요 금융 시장에서 현지 운용 역량을 강화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산운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Samsung Asset Management New York(SAMNY)은 미국 증권감독국(SEC)에 등록된 현지 자산운용사로, 미주 지역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운용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말 기준 약 12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 ETF 운용사 Amplify의 지분을 인수하며 미국 ETF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전략적 제휴를 통해 2023년 Amplify-Samsung SOFR ETF, 2024년 Amplify Bloomberg U.S. Treasury Target High Income ETF, 2025년 Amplify Samsung U.S. Natural Gas Infrastructure ETF를 연이어 상장하며 미국 ETF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과 파생상품으로 운용 범위를 넓히며 종합 자산운용사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amsung Asset Management London(SAMLN)은 유럽 국공채와 회사채 운용을 중심으로 2025년 말 기준 약 6조 원 규모의 해외 채권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USD뿐 아니라 EUR, GBP 등 다양한 통화 채권 운용 역량과 환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가증권 운용에 더해 대체자산 시장의 성장과 수요 확대에 발맞춰 2022년 인프라 운용 데스크를 설립했으며, 유럽 인프라 자산 운용을 확대해 2025년 말 기준 약 1.5조 원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ESG 시장에 대한 이해와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운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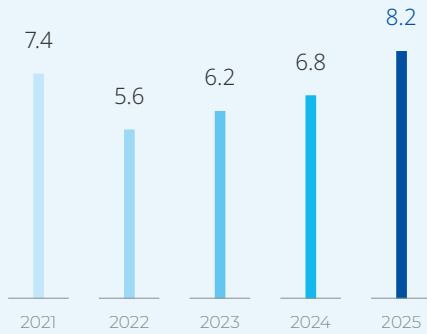
Samsung Asset Management Hong Kong(SAMHK)은 중국 본토, 대만, 홍콩,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운용하는 아시아 거점 법인으로, 2007년 11월 설립 이후 현지에서 아시아 액티브 펀드와 홍콩 상장 ET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주식 전략을 시작으로 2014년 중국 중소형주 투자전략을 구현하는 펀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으며, 이후 아세안과 인도 등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해 아시아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테마형 ETF와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 등 차별화된 ETF 상품을 통해 현지 ETF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약 1.1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법인

운용 자산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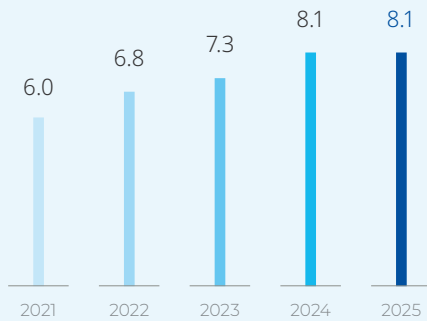
8.2 십억 달러



매출

(단위: 백만 달러)

8.1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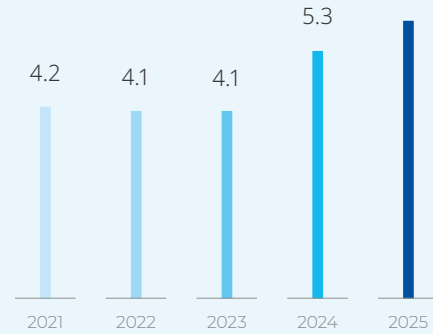


런던 법인

해외채권 운용자산

(단위: 조 원)

6.0 조 원



채권 포트폴리오, 통화 비중

- EUR
- USD
- GBP
- AUD



| | |
|-------|-------|
| ● EUR | 45.6% |
| ● USD | 45.8% |
| ● GBP | 3.3% |
| ● AUD | 5.3% |

인프라 포트폴리오, 섹터 비중

- 교통
- 폐기물
- 디지털
- 신재생
- 기타



| | |
|-------|-----|
| ● 교통 | 46% |
| ● 폐기물 | 11% |
| ● 디지털 | 15% |
| ● 신재생 | 11% |
| ● 기타 | 17% |



MANAGEMENT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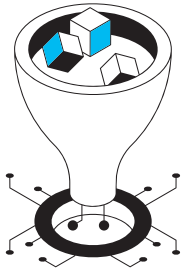
삼성자산운용은 고객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본연의 책임뿐만 아니라, 올바른 투자를 통해 미래 사회의 성장을 선도합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상품·마케팅·리스크 관리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 리스크·준법 및 책임경영

40 사회공헌

Risk, Compliance & Responsible Management

리스크·준법 및 책임경영



II

삼성자산운용은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성장을 위해 상품, 마케팅,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자산운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리스크 관리

삼성자산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운용목적 및 전략에 부합되게 리스크 허용수준을 결정하여 리스크가 적절하게 측정, 관리, 보고되도록 하는 기본방침을 준수합니다. 이사회 산하에 리스크 관련 종합 의사결정 기구인 리스크 관리집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전담조직들이 투자한도와 위규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리스크 감지시에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상품 설계와 출시부터 운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사전·중간·사후 단계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시장·신용·유동성·운영 등 유형별 리스크 측정지표를 설정하여 점검합니다. 또한 금융 위기뿐만 아니라 비금융 위기까지 모두 포괄하는 위기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운용과 Risk 관리 업무와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



RM 및 컴플라이언스 증시 문화 정착



최고 경영자의 Risk 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최고 수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보유 및 유지 보수



우수역량 및 경험을 보유한 리스크 관리 조직 확보



사전적 위험관리를 통한 의도치 않은 위험 최소화



신뢰를 위한 준법경영

삼성자산운용은 준법경영을 기본 원칙으로, 법규 준수와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 전반에서 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과 맞춤형 준법경영 평가 체계를 통해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사후 법률 검토와 상시 모니터링, 정기 교육·점검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며, 관련 활동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정기·수시로 보고하여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자산운용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소비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임자라는 인식 아래 정기적인 교육과 윤리 역량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 문화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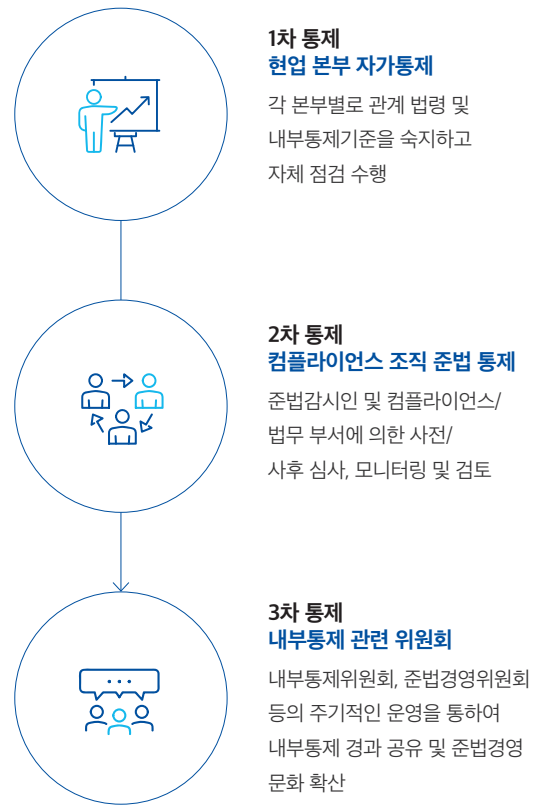
삼성자산운용은 윤리적 명성을 기업 경영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법과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모든 의사결정의 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성 경영원칙에 따라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정보 채널과 감사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시행하며, 윤리경영 체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활동



내부통제 운영 체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



삼성자산운용은 '인재제일'과 '상생추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청소년 교육과 상생협력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사와 협력하여 청년실업, 교육격차, 사회 양극화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CSR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

2012년부터 '드림 클래스'를 통해 교육 환경이 어려운 중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 등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생 멘토와 삼성임직원의 입체적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범이후 누적 중학생 10.6만 명, 대학생 2.6만 명이 참여했으며, 2021년부터는 드림클래스 2.0을 론칭해 '찾아가는 멘토링'과 관계사 체험 활동 등 프로그램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희망 디딤돌'을 운영하여 만 18세 보호 종료 청소년의 사회진입을 도우며 자립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주거 지원과 맞춤형 교육,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직무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한 '희망 디딤돌 2.0'을 시행하여, 전국 16개 센터, 누적 5만 6,920명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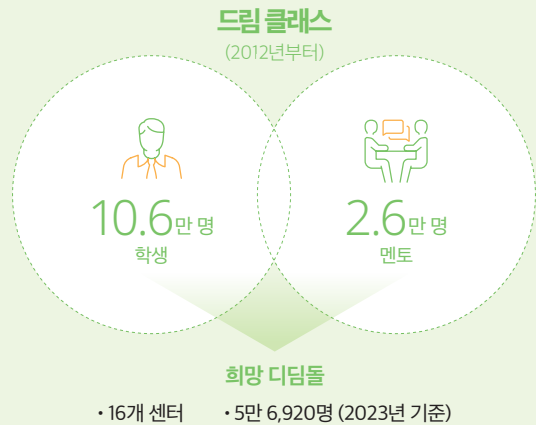


상생과 지역사회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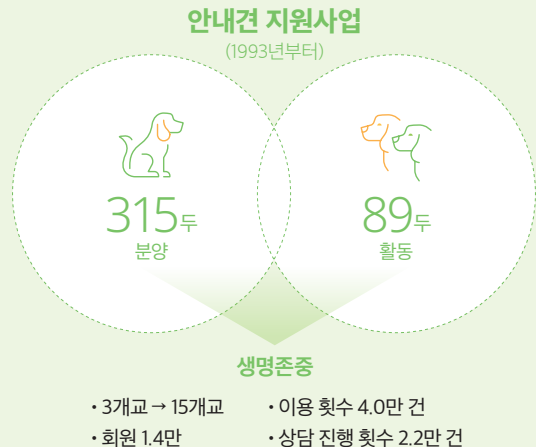
삼성금융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학교 내 '생명존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개 학교에서 시작해 2025년 15개 학교로 확대되었으며, SNS 상담채널 '라임'을 통해 다운로드 4.0만 건, 회원 1.4만 명, 상담 2.2만 건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1993년 국내 최초로 '장애인 보조견' 개념을 도입한 삼성안내견 학교를 통해 매년 10여 두의 안내견을 무상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총 315두를 분양했으며, 현재 89두가 활동 중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보육시설 및 복지관 후원, 농촌 일손 지원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꿈과 성장 지원



상생과 지역사회 동행





FINANCIAL SECTION

삼성자산운용은 장기간 시장에서 검증된 투자원칙을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상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며, 높은 도덕성과 철저한 원칙에 입각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이 더 큰 꿈과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2 연결재무상태표
- 43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44 연혁

Consolidated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연결재무상태표

제 28(당)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27(전)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 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 자산 | |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87,776,170,636 | 87,540,743,017 |
| II.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073,187,802,193 | 1,330,778,153,220 |
|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3,148,570,116 | 25,227,537,511 |
| IV.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29,804,077,075 | 351,877,348,822 |
| V. 관계기업투자 | 42,630,854,377 | 44,575,576,208 |
| VI. 유형자산 | 2,949,893,454 | 2,991,404,990 |
| VII. 사용권자산 | 21,605,017,259 | 28,645,288,521 |
| VIII. 무형자산 | 20,137,549,170 | 25,196,827,486 |
| IX. 순확정급여자산 | 3,627,697,466 | 3,067,657,485 |
| X. 이연법인세자산 | - | 36,295,493 |
| XI. 기타자산 | 6,633,496,534 | 6,834,102,589 |
| 자산총계 | 1,621,501,128,280 | 1,906,770,935,342 |
| 부채 | | |
| I.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 25,247,513,508 | 12,421,952,937 |
| II. 예수부채 | 2,226,837,880 | 19,382,408,217 |
| III. 차입부채 | 111,300,000,000 | 204,200,000,000 |
| IV. 기타금융부채 | 280,442,683,752 | 615,673,186,796 |
| V. 총당부채 | 452,333,949 | 431,011,526 |
| VI. 당기법인세부채 | 37,366,557,510 | 24,724,084,713 |
| VII. 이연법인세부채 | 4,718,368,221 | 3,073,981,762 |
| VIII. 기타부채 | 6,801,030,303 | 10,139,213,145 |
| 부채총계 | 468,555,325,123 | 890,045,839,096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1,152,945,803,157 | 1,016,725,096,246 |
| I. 자본금 | 93,430,000,000 | 93,430,000,000 |
| II. 자본잉여금 | (384,524,208) | (384,524,208) |
|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938,891,412 | 36,818,293,687 |
| IV. 이익잉여금 | 1,031,961,435,953 | 886,861,326,767 |
| 비지배자본 | - | - |
| 자본총계 | 1,152,945,803,157 | 1,016,725,096,246 |
| 부채 및 자본총계 | 1,621,501,128,280 | 1,906,770,935,342 |



Consolidated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28(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27(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 과목 | 당기 | 전기 |
|--------------------------------|------------------------|------------------------|
| I. 영업수익 | 549,772,041,005 | 472,097,654,930 |
| 1. 수수료수익 | 386,985,607,900 | 314,540,650,846 |
|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 95,738,495,688 | 82,913,180,656 |
| 3. 이자수익 | 41,698,395,798 | 58,831,734,070 |
| 4. 외환거래이익 | 4,594,467,759 | 7,084,495,060 |
| 5. 배당금수익 | 20,684,678,986 | 8,648,367,200 |
| 6. 기타수익 | 70,394,874 | 79,227,098 |
| II. 영업비용 | 352,085,031,052 | 312,265,061,475 |
| 1. 수수료비용 | 13,874,413,063 | 16,018,112,840 |
|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 | 64,733,573,749 | 64,713,929,228 |
| 3. 이자비용 | 46,063,126,572 | 46,454,829,613 |
| 4. 외환거래손실 | 8,189,271,751 | 701,026,760 |
| 5. 판매비 | 23,582,862,663 | 21,420,402,799 |
| 6. 일반관리비 | 195,616,646,728 | 162,945,224,331 |
| 7. 기타비용 | 25,136,526 | 11,535,904 |
| III. 영업이익 | 197,687,009,953 | 159,832,593,455 |
| IV. 영업외손익 | 3,606,457,070 | (21,303,094) |
| 1. 영업외수익 | 5,248,980,927 | 2,821,266,556 |
| 2. 영업외비용 | 1,642,523,857 | 2,842,569,650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1,293,467,023 | 159,811,290,361 |
| VI. 법인세비용 | 56,193,357,837 | 37,966,755,481 |
| VII. 당기순이익 | 145,100,109,186 | 121,844,534,880 |
| VIII. 기타포괄손익 | (8,879,402,275) | 38,766,042,896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498,766,455) | (1,316,507,9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21,297,126 | (186,968,955) |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2,005,124,660) | (1,498,813,663) |
| 지분법자본변동 | 9,724,088 | (18,548,86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475,336,991 | 387,823,535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7,380,635,820) | 40,082,550,84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662,187,652 | (377,948,551) |
| 해외사업환산손익 | (9,498,470,730) | 44,183,826,284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손익 | 1,670,063,620 | (3,845,706,63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 (214,416,362) | 122,379,741 |
| IX. 당기총포괄이익 | 136,220,706,911 | 160,610,577,776 |
| X. 당기순이익의 귀속 | 145,100,109,186 | 121,844,534,880 |
| 1. 지배기업의 소유주 | 145,100,109,186 | 121,844,534,880 |
| XI.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136,220,706,911 | 160,610,577,776 |
| 1. 지배기업의 소유주 | 136,220,706,911 | 160,610,577,776 |
| XII. 지배기업 주주지분에 대한 주장이익 | | |
| 1. 기본주당순이익 | 7,765 | 6,521 |

History

연혁

1998~1999

- 1998. 09 삼성생명투신운용 설립 (납입자본금 300억 원)
- 1999. 12 옛삼성투신운용 흡수합병
(납입자본금 632억 원, 수탁고 18.9조 원)

2000~2009

- 2000. 03 자본금 300억 원 유상증자(납입자본금 932억 원)
삼성생명투신운용에서 삼성투신운용으로 상호 변경
- 2001. 11 연기금투자플 중간운용사 선정
- 2002. 10 Kodex 200 ETF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 2004. 12 관리자산 60조 원 돌파
- 2005. 04 ABF펀드 설정 (아시아채권펀드의 한국 내 운용사로 선정)
- 2005. 11 연기금투자플 중간운용사 재선정
- 2006. 01 삼성투신운용 브랜드 슬로건 (Stay Ahead) 제정
- 2007. 11 홍콩 현지법인 설립
Kodex 200 ETF 일본 동경증권거래소 상장
- 2008. 04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
- 2009. 09 Kodex 인버스 ETF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일본 노무라 자산운용 한국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
- 2009. 11 연기금투자플 중간운용사 재선정

2010~2015

- 2010. 02 Kodex 레버리지 ETF 한국거래소 상장
- 2010. 04 삼성투신운용에서 삼성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 2010. 11 일본 니코펀드 한국위탁운용사로 선정
- 2010. 12 한국투자공사(KIC) 자산위탁운용사로 선정
- 2011. 05 Asian Investor지 선정, 한국 최우수 운용사
- 2012. 04 국내 최초 Kodex MSCI Korea ETF 상장
- 2013. 08 Kodex 삼성그룹주 ETF 일본 동경증권거래소 상장
- 2013. 10 연기금투자플 중간운용사 재선정
- 2013. 12 12월 말 기준 관리자산 127.4조 원 달성
- 2014. 03 국민연금 최초 해외 주식 위탁운용사로 선정
- 2014. 10 중국 상해 리서치 센터 설립
- 2015. 02 뉴욕 현지법인 인수
홍콩 최초 선물 ETF "Kodex HSI Futures ETF /
Kodex HSI Futures RMB FX ETF" 홍콩거래소 상장
- 2015. 04 인도 릴라이언스캐피탈과 전략적 제휴 체결
- 2015. 06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 2015. 10 미국 캐피탈그룹과 전략적 제휴 체결
- 2015. 11 중국 ETF시장 진출 위한 건신기금과의 전략적 제휴 체결
- 2015. 12 관리자산 200조 원 달성, 삼성생명 런던법인 인수

2016~2019

- 2016. 04 미국 캐피탈그룹과 삼성 한국형 Target Date Fund 출시
유럽 로스차일드그룹과 전략적 제휴 체결
홍콩증시 최초 원유선물 ETF상장

- 2016. 06 홍콩증시 최초 레버리지 인버스 ETF 4종 상장
- 2016. 08 회사 이전
(서울시 중구 태평로 →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 2016. 10 중국 북경 자문사 설립
- 2017. 01 자회사(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헤지자산운용) 분사
- 2017. 04 호주 IFM 인베스터와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 2017. 05 미국 캐피탈그룹과 삼성한국형 RIF 출시
- 2017. 07 업계최초 FA, PB 전용 플랫폼 오픈
유럽 현지고객 대상 삼성 아세안 펀드 출시
- 2017. 09 연기금투자플 중간운용사 재선정
- 2017. 10 Kodex 상장 15주년
- 2017. 12 중국 건신기금 ETF 상장관련 운용 자문
- 2018. 01 관리자산 230조 원 돌파
Kodex 순자산 20조 원 돌파
- 2018. 05 중국 상해거래소 내 건신 MSCI ETF 상장
- 2018. 10 삼성 한국형 TDF 수탁액 5천억 원 돌파
- 2019. 06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 재선정
- 2019. 0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PIS 중간운용사 선정
- 2019. 12 삼성 한국형 TDF 순자산 1조 원 돌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금융자산 위탁운용기관(OCIO) 선정

2020~2025

- 2020. 06 펀드 수탁고 100조 원 돌파
- 2020. 09 국내 최초 주식형 액티브 ETF 상장
- 2020. 10 관리자산 280조 원 돌파
- 2020. 12 이화여자대학교 기금 위탁운용사 선정
- 2021. 04 매뉴라이프자산운용 해외투자부문 MOU 체결
기후변화 정보공개 국제협의체(TCFD) 서포터즈 가입
- 2021. 05 Kodex ETF 순자산 30조 원 돌파
- 2021. 08 관리자산 300조 원 돌파
- 2021. 09 연기금투자플 중간 운용사 재선정
- 2021. 11 Kodex 액티브 ETF 자산 2조 원 돌파
- 2022. 04 미국 특화형 ETF 운용사 애플리파이 2대 주주 등극
- 2022. 05 산재보험기금, 기금운용평가 최상위 등급 '탁월' 획득
- 2022. 07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전담운용기관 최초 선정
- 2022. 10 Kodex 상장 20주년
- 2023. 01 홍콩법인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국내 운용사 중 아시아 최초)
- 2023. 02 Kodex 채권ETF 순자산 10조 원 돌파
- 2023. 06 Kodex ETF 순자산 40조 원 돌파
- 2023. 11 ETF 시장 100조 달성 공로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공로상 수상
Kodex SOFR ETF 미국 수출 (국내 운용사 첫 사례)
- 2023. 12 Kodex CD금리, 상장 이후 최단기간 5조 원 돌파 등 대형화 성공 (2023년 12월 6일 기준 5.9조 원)
- 2024. 02 삼성자산운용, K제로인 '올해 펀드대상' 수상
- 2024. 05 Kodex 미국 대표지수TR ETF 2종 순자산 2조 원 돌파
(2024년 5월 23일 기준 2조 원)
- 2024. 07 Kodex ETF 순자산 60조 원 돌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 재선정
- 2025. 03 삼성자산운용, 아시아 최초 '버퍼형 ETF' 상장
- 2025. 08 KODEX 미국S&P500 순자산 5조 원 돌파
- 2025. 10 KODEX 순자산 업계 최초 100조 원 돌파
연기금투자플 중간 운용사 재선정
- 2025. 11 서울대학교발전재단 금융자산 위탁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 2025. 12 KODEX 1년 누적 개인 순매수 13.5조 원으로
자산운용업계 1위 기록

삼성자산운용